

#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

김 유 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 이것이 바로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보여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53페이지)

사람의 사회생활은 정치생활, 물질경제생활, 정신문화생활로 이루어져있다. 이 세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이 보장되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이 규정된다.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은 무엇보다먼저 정치생활분야에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하게 유린한다는데 있다.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기능으로서 사회생활과 사회발전에서 주도적이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사람은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되어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정치의 진보성과 반동성은 사회의 주인인 사람, 근로인민대중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해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는 정치라야 인민적인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는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민주주의》의피를 쓴 독재로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변호론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에 대한 독점자본가들의 정치적억압과 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는 위선적인 부르쵸아민주주의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정치의 《기술화》, 《전문화》, 《신속화》를 구실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력을 최대한 집중시키고있다. 결과 립법권과 사법권이 행정권에 철저히 종속되어있다. 이것은 대독점재벌들의 이익을 손쉽게 실현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 자본주의정치의 필연적귀결이다.

특권세력에 의한 권력의 독점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독재의 강화를 가져온다. 겉으로는 정치활동에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독점재벌의 이익에 저촉될 때에는 사소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것이 자본주의국가이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진보적인 사상을 탄압하는데 종사하는 인원들과 폭력조직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독점재벌들을 위한 군사경찰국가로 더욱더 파썸화되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는 극소수 대독점재벌들의 돈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권정치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돈이 곧 권력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실제적지배자는 돈이다. 독점자본의 재정적후원을 더 많이 받아야 대통령으로 되고 집권여당으로 된다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자본주의나라 정객들은 독점자본가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정치시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의 법령과 결정이란 모두 극소수 독점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대독점자본가들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기 위하여 방대한 국방예산을 비롯한 반인민적정책을 작성하고 근로대중의 고혈을 짜낸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하고있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정치의 진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으로 권력을 틀어쥔 독점재벌들에 의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이 온갖 정치적무권리를 강요당하고 가혹한 착취와 압박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은 다음으로 물질경제생활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고 기형적인 생활을 강요한다는데 있다.

경제는 사회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적전제이며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이다. 물질경제생활이 사람의 본성에 맞게 진행되자면 그것이 평등하고 건전한것으로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는 평등한 물질경제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와 고용로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와 략탈은 새로운 특징을 띠고 더욱 강화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에 자본가들의 착취의 강화는 고용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률을 높이고 착취의 범위가 확대되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기계제산업시대 고용로동착취의 물질적수단이 기계기술이었다면 정보산업시대에는 정보수단들이 착취의 물질적수단으로 리용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직접적인 생산공정에 참가하는 지능로동이 수적으로는 매우 적어도 그들이 정보설비를 리용하여 생산하는 물질적부는 엄청나게 많으며 따라서 자본가들이 짜내는 리윤도 늘어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에 자본가들은 제국주의시기에 보편적으로 얻게 되는 독점적고률리윤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 최대한의 독점적고률리윤을 짜내고있다. 최대한의 독점적고률리윤은 전례없이 높은 착취률에 의하여 보장되고있다. 그것은 지능로동자체가 질이 높고 로동일과 로동강도를 높여 착취할수 있는 대상이며 지능로동이 정보설비와 정보를 리용하면 그 생산성이 배가로 높아지기때문이다.

정보산업시대에는 자본가들이 직접적인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뿐아니라 그 선행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까지 착취함으로써 착취의 범위가 확대된다. 과학과 기술, 정보와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되고있는 정보산업시대에는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선행공정에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등의 공정이 모두 생산공정으로 전화되고 지능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종사하고있다. 이들도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로서 자본주의적착취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에 직접적인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는것은 그들자신의 로동의 산물일뿐아니라 그 선행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로동의 공동의 산물이다.

정보산업시대에는 지적능력이 높은 근로자들이 생산공정의 선행단계에 많이 집중되어있다. 선행공정의 지능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정보기술수단과 정보의 높은 효율성으로 하여 그 리용과정에 얻어진 추가적리득은 그 개발자에게 차례지지 않고 자본가에게 빼앗긴다.

직접적인 생산공정의 선행단계에서 일하는 지식층들도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착취대상으로 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에는 많은 산로동의 참가없이 물질적부를 창조하지만 착취의 범위가 좁아진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된다. 착취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지만 자본주의적착취는 더

욱더 은폐된 형태로 진행되고있다.

정보산업시대에 자본주의적착취관계가 더욱더 은폐된 형태로 강화되고있기때문에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소득분배와 소비생활수준에서 자본가계급과 근로대중사이의 격차가 커지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수준이 낮아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물질생활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물질경제생활에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있을뿐아니라 기형화되어가고있다.

기형적인 물질생활은 사람들의 건전한 생활적수요가 아니라 비인간적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물질생활이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들,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자본가들은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상품의 판로가 막히게 되자 비인간적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더욱더 커가는 상품판매난으로부터의 출로를 물질생활을 기형화하여 새로운 상품수요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사람들속에 저속한 허영심과 호기심을 불어넣어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양식을 류포시키는 한편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여러가지 물건들과 수단들을 만들어 상품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인간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소비생활과 인연이 없는 비인간적인 수요가 조장되고 물질생활이 더욱더 기형화되어가고있다.

부르조아변호론자들까지도 이것은 고칠수 없는 현대자본주의의 고질이라고 개탄하고있다. 기형적인 물질생활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신적불구자로, 육체적생명까지 파괴하고 죽음의 길에 빠져들어가는 육체적불구자로 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은 다음으로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이 더욱더 빈궁화되고있는것이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로 살며 발전해나가려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녀야 한다.

사람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이 인간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면 사람을 무지몽매한 사상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것은 최대의 죄악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나는데 따라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이 고상하고 풍부해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빈궁화되어가고있다. 자본가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어 저들에게 순종하는 무뎡하고 무기력한 노예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자본가들은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돈을 쓰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정신문화적발전을 저애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있다. 그들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양식,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을 미친듯이 퍼뜨리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지배층과 독점자본가들의 이와 같은 책동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건전한 사상정신적발전이 심히 억제되고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사회와 집단도 안중에 없는 정치적문맹자로 전락되고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상관하지 않으며 자기 나라가 국제적비난을 받아도 아무런 수치도 느낄줄 모른다.

현대문명을 떠드는 미국에서는 완전문명자수가 수천만명을 헤아리고있다.

교육뿐만아니라 문학예술, 체육 등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가 상업화되어 인민대중의 건전한 사상정신적발전을 심히 저해하고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간판밑에 온갖 반동적이고 부패한 사상문화가 범람하여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고있다.

자본주의나라 신문과 방송, 출판물들은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가장 반동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사람들의 저속한 본능을 자극하고 달콤한 말로 타락으로 유혹하는 자본주의사상문화에 의하여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변태적욕망을 추구하는 타락분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사회를 《절대자유》의 미명밑에 악명높은 마약왕국, 타락분자들과 도박군들의 소굴로 만들어내는것이 자본주의사상문화이다.

《자유》를 구실로 동물적인 본능과 색정, 부화방탕을 조장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 의식을 좀먹고 그들을 정신도덕적으로 타락시킴으로써 반동적지배체제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반인륜적범죄이다.

자본주의생활양식은 사람들을 돈과 향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돈의 노예,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속물로 전락시키고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몇푼의 돈때문에 혈육까지 팔고 죽이는것이 보통일로 되고 있다. 돈에 환장이 되어 인간의 존엄도 권리도 양심도 다 켜버린 기형적인간들을 날마다 시간마다 대량적으로 만들어내는것은 인류의 수치이며 비극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는 색정적인 쾌락에 물젖은 인간들에 의해 온갖 패륜패덕이 성행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의 집권층은 저들의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극구 찬양하고있다. 원시인들도 낮을 붉힐 야생적인 동물세계를 오늘의 현대문명시대에 펼쳐놓은 자본주의생활양식이 인륜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진보적인류의 규탄배격을 받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자본주의사회는 썩고 병든 사회, 전도가 없는 사회이다.

우리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을 높은 계급적 안목으로 정확히 보아야 하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